

防犯について 방법에 대해서

일본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미야자키현은 일본에서도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유감스럽게도 범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안심,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평소에도 스스로 생각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본 주민을 포함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지역 주민의 일원이 되어 함께 노력하며, 신뢰 가능한 이웃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안심·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정보를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.

●여권과 재류카드

-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과 재류카드는 중요한 물건입니다. 외출할 경우, 반드시 여권과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해둡시다.
- 만일,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또는 재류카드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여주도록 하십시오.
-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둡시다.

●방법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

- 외출 시에는 열려있는 창문과 문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관을 반드시 잠그는 등 빈집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시다.
- 자동차·오토바이·자전거 등을 세워두고,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는 반드시 열쇠로 잠그도록 합시다. 미야자키현에서도 자전거 도난수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. 열쇠로 잠그는 습관을 들여놓읍시다.
- 자전거를 구입할 때, 꼭 자전거 가게에서 방법 등록 해둘 것을 권장합니다.

방법 등록을 해두면 자전거 도난이 발생 한 경우에도 경찰에서 자전거를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친구로부터 중고 자전거를 물려 받을 때에는, 방법 등록 명의를 변경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자전거 가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

- 저녁 외출은 가능한 한 자제합니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밝은 거리로 다니거나 방법 벨을 소지하는 등 주의해두는 것이 좋겠지요.
- 자기 전에는 현관을 잠갔는지 열려있는 창문은 없는지 등 문단속을 체크합니다.

•방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

- 폭행 · 상해 · 강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장소에서 바로 110 번으로 신고하십시오.
- 강도 및 빈집털이로 인해 방 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경우, 손 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110 번으로 신고하십시오.
- 다쳤을 경우에는 가족과 친구, 직장 동료 등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후, 경찰에게 신고합니다.
- 자전거, 자동차 등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.

○긴급상황 시 전화 거는 방법

- 110 번은 사건 · 사고가 있을 경우, 119 번은 상해 · 질병 ·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합니다. 긴급 시 이외는 연락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언제, 어디서(근처 건물 명칭 등) 무슨 일이 있었는지, 다친 사람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, 자신의 이름 등을 알려주십시오.
-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
★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곤란한 상황, 경찰에게 상담 받고 싶은 경우,
9 1 1 0 (휴대전화로도 연락가능합니다)로 전화해주십시오. 단, 일본어로만
대응 가능합니다.

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, 미야자키현 경찰 본부 홈페이지
(www.pref.miyazaki.lg.jp/police) 를 참고해주십시오.

이 코너로의 질문, 의견,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
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TEL 0985-32-8457 FAX 0985-32-8512 Email miyainfo@mif.or.jp